

# 「오누이 힘내기」 설화의 젠더 경관

최정민\*

## Gender Landscape of *The Strength Trial between Brother and Sister Folk Tales*

Jung-Min Choi\*

**요약 :** 본 논문은 신문화지리학의 관점에서 「오누이 힘내기」 설화의 젠더 경관을 탐색하였다. 젠더 공간은 수치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출되고 추상화와 일반화를 통해 연구된다. 젠더 장소는 주관적이고 특별한 경험이 내재된 젠더 정체성과 교감한다. 젠더 경관은 제3자가 응시하는 구체적 화면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은폐하고 있다. 경관의 물질적 속성에는 젠더성 자체가 없으나 남아선호의 희생자, 재생산의 도구로서 여성성은 주체적 종속화의 과정에 있었다. 설화와 결합하여 텍스트화되었기 때문이다. 성, 다리, 무덤, 바위 경관은 신빙성이 부족한 서사를 보완하기 위한 위증 도구로 사용되었다.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젠더 경관은 고정불변이 아닌 창안되고 경합하며 소멸되었다.

**주요어 :** 젠더 경관, 「오누이 힘내기」, 신문화지리, 기억 매체

**Abstract :** This paper explored the gender landscape of *The Strength Trial between Brother and Sister* folk tales from the viewpoint of new cultural geography. Gender space is derived by analyzing numerical data and also studied through abstraction and generalization. Gender place communicates with the gender identity in which subjective and special experience is embedded. Gender landscape, which is the specific screen in which the third person gazes, hides gender ideology. There is no gender identity in the material attributes of the landscape, but femininity as a victim of the preference for boys and a tool of reproduction was in the process of subjective subordination. Because it is textualized in combination with narrative. To supplement credibility of narratives, castle, bridge, grave, and rock landscapes were used to perjure. Gender landscapes reflecting the social aspect of the time were not immutable but invented, competing and disappeared.

**Key Words :** Gender landscapes, *The Strength Trial between Brother and Sister*, New cultural geography, Media of memory

### I. 서론

일상이 강한 이유는 주저 없이 녹아들기 때문이다. 생활 세계에서 ‘관측되는 일상’<sup>1)</sup>으로서 문화는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닌 익숙한 현실이며, 우리가 느슨히 감응하는 ‘평범한 일상’<sup>2)</sup>에는 두터운 이데올로기와 담론이 스며 있다.

강제의 영역인 국가 바깥에 형성된 시민사회는 동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는 더욱 효과적이다. 억압적 국가장치에 비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영향력이 더욱 큰 것은 명확하다.<sup>3)</sup> 문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 구전 시대의 설화는 ‘텍스트 사막’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디어일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연구 방법론과 이미지로서 경관 재현,

\*한국고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과정(Master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in8967@hanmail.net)

텍스트로서 경관 분석 등의 신문화지리 방법론(Cosgrove, 1989; Jackson, 1989; Duncan, 1990; Wylie, 2007)과 기억의 사회성과 역동성에 관한 연구 방법(Halbwachs, 1992; 한지은, 2008; Assmann, 2011; 한지은 2014; 2015)을 적용하여 설화에서 증거로 등장하는 젠더 경관을 분석하였다. 수동혁명<sup>4)</sup>의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가 탈각되는 심층에는 조선 중기 지배 권력이 봉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의 물적, 상속적 기반을 탈취했던 퇴적 층리가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성리학은 계몽 군주처럼 설명적 태도로 일관했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주로 지배 계급의 수행에 집중하였다. 이제 피지배 여성이 남성중심주의를 수용하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억압적 내면화 과정은 여성이 주체적으로 굴종을 선택했다는 착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오누이 힘내기」 설화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누이가 패배하여 목숨을 잃는 서사는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한집에 힘이 센 장사가 둘이면 안 된다는 불가피한 설정을 통해 힘내기의 필요성을 창안하고 목숨을 담보로 경합한다. 오라비는 한양을 다녀오고 누이는 성, 탑 쌓기, 다리 놓기 등 거주지 중심의 미션을 부여 받는다. 어머니가 뜨거운 죽과 같은 먹거리로 시간을 지체시켜 누이가 패배하여 죽게 되는 잔인한 서사이다.<sup>5)</sup> 충청지역 서사의 공통점은 성, 탑, 다리와 같은 경관을 증거로 제시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했던 사건과 사실임을 강요한다. 청취자들은 시각적 특권인 경관의 존재가 거짓일 수 없기에 오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관을 ‘증거 경관’이라 부르며 그 재현성에 착목하였다.

1979년부터 1985년에 걸쳐 채록되어 1980년부터 1992년까지 간행된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현재도 간행 중에 있는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를 중심으로 윤승준(2016), 김준희(2016)를 참고하여 증거 경관의 유무와 문화적 언어권을 고려하여 연구 스케일을 충청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누이가 힘내기에서 패배하여 죽게 되는 젠더 설화의 증거 경관으로는 경기 안성 죽주산성, 강원 영월 계족산성, 충주 남산성, 청주 구녀성, 영동 할미성, 진천 농다리, 보은 삼년산성, 충남 예산 묘순이 바위, 당진 가야산 문달을 바위, 아산 피꼬리성, 부여 정산성, 무명보(확인 불가), 공주 석송보, 홍성 한치마석, 공주 성일재 산성, 공주 무성산성, 청양 대흥산성, 전북 완주 금마탑, 경북 상주 견훤성, 전북 익산 미륵탑의 20개 경관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확인 가능한 경관이 등장하면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청주 구녀성, 진천 농다리, 예산 묘순이 바위, 공주 석송보, 무성산성 설화 5개를 선정하였다.

「오누이 힘내기」 설화의 선행 연구들은 남성 주체를 형성하는 여성 배제의 신격 해석(김영희, 2013), 공모형과 희생형으로 유형화한 젠더 담론의 광범위한 서사 연구(김준희, 2016), 전자지도자료 구축을 위한 데이터 방법론(윤승준, 2016), 감정과 경험의 측면에서 연행된 서사 탐색(김준희, 2019), 현대 드라마와 서사 비교(이동아, 2019)가 있다. 설화는 장소와 경관을 대상으로 누적된 사회 환경을 반영하는 일상적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설화의 구체적 배경이 되는 지리적 환경과 인간과 상호작용에 관한 주제는 배제되어 왔다. 상상력이 펼쳐낸 서사이지만 경관처럼 물질적 환경이 멀쩡하게 재현되고 텍스트에서도 장소의 특징과 당대의 기후, 지형이 드러난다. 따라서 서사가 생산되고 유통되었던 공간의 정체성,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 연행자의 장소감, 문화 경관의 재현 등 지리학의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충청지역 「오누이 힘내기」 설화의 증거 경관과 젠더적 재현, 개별 서사의 지리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공간, 장소, 경관의 젠더성

### 1. 공간과 장소의 젠더성

지리학에서 일반화·추상화된 영역을 설명하는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실증주의와 경험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비교적 광범위한 스케일을 대상으로 최근에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간의 과학적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젠더 공간은 추상적 공간에서 젠더성을 살펴보는 개념으로 주로 실증적 접근을 통해 수치화된 결과값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다. 서울시민들의 교통수단별 하루 평균 이동시간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성은 버스와 지하철 41.3분, 도보 37분, 택시와 승용차 23.5분, 남성의 경우 택시와 승용차 62.4분, 버스와 지하철 35.1분, 도보 20.6분”으로 나타난다(손문금, 2010:19). 대중교통이 젠더 공간으로 강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젠더화된 공간은 버스 정류장에서 유난히 많은 여성들을 보게 될 때 젠더 공간으로도 나타난다. 한낮의 시

간이라면 더욱 그렇다.

안전행정부의 행정구역 건물 데이터(2010년)를 사용해 건축법상 건물 용도에 따라 서울지역 건물의 젠더링을 수행한 연구(이건학 등, 2013)는 젠더 입력값에 따라 젠더화된 공간구조의 발현이라는 단어 반복으로 들리기도 한다. 계량적 공간 분석,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공간 내부의 구조, 구조의 연관, 호명 받은 주체들의 담론 등의 보완을 통해 ‘표피 아래’의 의미를 독해할 필요가 있다.

공간의 추상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인본주의 ‘장소’ 개념은 지리학의 층위를 감성적 영역으로까지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인본주의 지리학은 현상학과 실존주의의 영향으로 장소는 객관적 실재보다는 개인의 특수한 경험과 공유되는 생활세계에서 인간의 특수하고 고유한 감정에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장소는 몸으로부터 지구적 장소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케일이 존재한다.

젠더 장소는 자신의 주관적이고 특별한 경험이 내재된 젠더 정체성과 교감할 수도 있다. 제주도의 해녀들에게 마을 앞 바닷가(바다의 제주도 방언)은 두려움 가득한 괴물이면서 동시에 역설 환경을 개척하고 가족의 경제적 삶을 유지시켜 준 고마움의 장소가 된다. 그러나 흔히 바다를 엄마의 마음으로 환유(換喻)하는 장소 기억 강요에 숨비소리(해녀들이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내뿜는 휘파람 소리) 가득한 노동의 고단함은 배제되었다. 이렇듯 장소는 장소의 고유한 본질만을 강조하다보면 개별 인간 사이의 차이를 분실하는 ‘장소신화’를 낳기도 한다.

인본주의 장소 연구가 구조주의와 만나면서 사회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Anderson(1996)은 캐나다 밴쿠버 차이나타운을 연구하면서 1950년대에는 연방 행정부가 차이나타운을 ‘빈민굴’의 표적으로 삼아 도시 재생 및 고속도로 계획에 의해 파괴했다가 1970년대에는 백인 캐나다인들에 의해 가치가 있는 ‘Chineseness’를 위한 민족 유산으로 분류되고 캐나다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오리엔탈 지구로 꾸몄다고 대비시켰다. 순진한 백인 여성이 외부자인 화교 남성에게 위협받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선전하였지만 화교 소매업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백인 여성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백인 지배층에 저항하기도 하였다. 즉 차이나타운의 장소성은 지배 권력에 의해 조작될 수 있고 장소에 젠더와 인종이 교차하고 있다. 린다 맥도웰(Linda McDowell)은

더 나아가 기억의 저장소로서 가정의 젠더성을 연구하였다(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2010:133-171). 산업사회로 이동하면서 도시에서 가정과 임금노동의 분리, 가정에서 여성노동의 인정과 보상, 가사노동자의 정치경제학을 제기하였다.

## 2 젠더 경관

경관(landscape)은 16~17세기 유럽의 풍경화 발전과 관련하여 등장하였다. 응시의 대상이 되는 물질로서 인간의 의식 바깥에 존재하지만 의식을 통해서 인지된다. 인지되는 과정에서 이미지로 보이고 혹은 텍스트로서 독해된다. 지리학에서 경관, 공간(space), 장소(place)는 구분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다른 학문에서는 혼용되고 있다. 이 논문의 핵심적 개념인 경관은 추상적 공간, 경험하는 장소에 비해 명확하게 대비되지 않을 수도 있다.

페미니즘 지리학 분야에서는 Massey(1994), Rose(1994), McDowell(1999), Mitchell(2000), 김현미(2008), 정현주(2008; 2016), 이수안(2009), 손문금(2010), 안숙영(2012), 이진학 등(2013) 등 젠더 장소, 젠더 공간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되었다. 환경과 인간의 흔적에 관한 지리적 분포에 주목하였던 지리학계에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계급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인종, 정체성, 식민, 젠더에 대한 다양한 갈등 사례 등이 적용되었다.

신문화지리학 경관론과 관련된 외국 연구 소개(홍금수, 2009; 진종현, 2013; 한지은, 2013)에 비해 경관과 젠더가 결합하는 주제로 등장한 연구와 소개는 없는 편이다. 젠더 경관이란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간의 흔적과 기억을 품은 문화경관의 일종으로 젠더성이 개입된 개념이다. 젠더 경관은 경관이라는 물질성에 차별적 젠더성이 교차되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에 관한 본격적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성별 노동 분업과 위계적 이분법에 관한 광범위한 젠더 연구가 다양한 상황에서 소외된 영역에 속한다. 국내에서 젠더 경관과 관련된 소개는 〈앤드류씨 부부〉에 대한 질리언 로즈(Gillian Rose)의 재평가(정현주 역, 2011:222)가 독보적이다. 그러나 이 밖에 젠더 경관에 특화된 소개나 연구는 없다. 외국 문헌에서도 젠더 경관에 대해 개념 정의는 찾기 힘들었고 전문적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Johnson(1995)은 더블린 시내의 동상 경관을 분석하면서 부분적으로 젠더성에

표 1. 젠더와 공간, 장소, 경관 비교

|        | 젠더 공간      | 젠더 장소         | 젠더 경관     |
|--------|------------|---------------|-----------|
| 철학적 배경 | 실증주의, 경험주의 | 현상학, 실존주의     | 문화연구      |
| 연구 대상  | 사회 경제적 데이터 | 장소감 → 담론      | 이데올로기, 담론 |
| 연구 방법  | 계량 분석      | 심상, 해석        | 응시, 독해    |
| 연구 결과  | 공간적 성차     | 젠더 주체의 고유한 인식 | 은폐된 젠더성   |

표 2. 「오누이 힘내기」 설화 인터뷰 목록

| 대상 | 성별 | 연령  | 직업  | 채록 장소 | 설화     | 최초 인지 시기 |
|----|----|-----|-----|-------|--------|----------|
| A  | 여  | 60대 | 요식업 | 청주    | 구녀산    | 90년대     |
| B  | 여  | 80대 | 농업  | 공주    | 홍길동성   | 50년대     |
| C  | 남  | 90대 | 농업  | 예산    | 묘순이 바위 | 30년대     |
| D  | 여  | 60대 | 소매업 |       |        | 70년대     |
| E  | 남  | 70대 | 소매업 | 진천    | 농다리    | 50년대     |

관해 기술하고 있다. ‘The floozie in the Jacuzzi’와 같은 Anna Livia Plurabella(연구자 주: 아일랜드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 속 인물) 기념물처럼 여성을 주로 성적인 이미지로 경관화하거나 아일랜드의 해방을 상징하는 정치인 O’Connell의 동상 하단의 날개달린 여성 동상들처럼 부차적인 것으로 코드화한다고 설명한다. 19세기 실론 섬의 농장주인 영국 흑아비들의 도덕적 문제를 빅토리아 시대의 중산층 가정의 안정성과 비교(Duncan, 2005), 식민지 정탈전에서 젠더와 성(McClintock, 1995), 비이성애와 경관(Jackson, 1989) 연구가 있으나 젠더 경관의 전반적 이론화로 보기 힘들다. 젠더와 경관에 관한 학제간 기획 프로그램 결과물(Dowler *et al.*, 2005)은 주로 도덕적 규범에 주목하고 서론에서 젠더와 경관 연구 역사를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sup>6)</sup>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젠더 경관은 어디인가? 퇴근 시간이 되지 않은 오후의 정류장을 가면 그곳이 도시 번두리든 읍면의 장날이든 여성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자가 교통자

그룹에 낄 수 없었고, 정규직 노동시장에서 배제당한 시간제 여성 노동자, 농촌의 노년 여성, 가사에 포박당한 주부가 근거리 대중 교통수단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집밖 생산의 영역에서는 남성의 보조물로, 집 안에서는 불박이장으로 고정된 젠더성이 나타난다. 쭈그려 앉아 불을 피우고, 밥을 짓고, 밥상을 옮기는 비합리적 동선 등 전근대의 부역 시스템의 고단함에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아일랜드 거실로의 변화는 젠더 이분법의 현대적 강화이다.<sup>7)</sup> 따라서 주거공간은 여전히 여성 경관이 된다.

젠더 경관에는 좀 더 복잡한 구조들이 포개져 있다. 미디어, 다양한 도시 경관, 관광지와 같이 개별 기억뿐만 아니라 집단적 기억을 공유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억되는데 주체의 실천을 통해 수동적 영역이 아니라 지배와 저항이 경합하는 장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집단적 대리 체험의 측면에서 젠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젠더 경관 연구는 일상의 사적 경험의 효과가 젠더 장소 연구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구체성이 마르지 않도록 ‘보고 읽는 자’의 경계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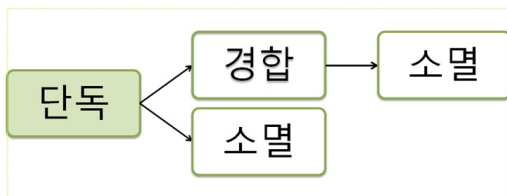


그림 1. 설화의 생성과 소멸 과정

### III. 충청지역 「오누이 힘내기」 설화 경관

경관은 기억을 통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경합하고 소멸한다. 경관은 서사와 결합되어 담론을 구성하고 담론은 단독으로 등장하여 다른 담론과 경합하거나 소멸

하는 유통과정을 경과한다. 따라서 본 장은 단독 담론(구녀성, 무성산성), 경합 담론(묘순이 바위, 농다리), 소멸 담론(석송보) 순으로 구성하였다.

경관의 종류 측면에서는 유형 중 대표성을 갖는 5개(바위, 무덤, 성, 다리, 보)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구비문학대계에 채록된 원문들도 있지만 가독성이 좋은 서사를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설화 생산 당시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지리적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여도(東輿圖)』(1856)의 해당 지역을 삽입하였다. 고성(古城)은 동여도를 통해 위치가 특정되었고 주변 마을들과 인접성, 노변성 등이 확인되었다. 서사를 젠더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현장조사를 통해 오래 거주한 인터뷰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서사 자체보다는 처음 접했을 때의 심상과 재생산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그림 2. 동여도 범례

출처 : 한국학자료센터.

## 1. 단독 담론 사례(구녀성 무덤과 무성산성)

### 1) 충북 청주 구녀성과 무덤

청주 구녀성은 '구라성'이라고도 하는데 당시의 지방 자치단체(청원군)에서 세운 표지판의 글은 경관 응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들 하나와 아홉의 딸을 가진 홀어머니가 있었다. 남매는 모두 장사였는데 불화가 잦아 생사를 건 내기를 하였다. 딸들은 성을 쌓고 아들은 나막신을 신고 서울 다녀오기였다. 어머니가 살펴보니 성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아들은 돌아올 줄 몰랐다. 어머니는 가마술에 팔죽을 끓여 딸들을 불러 모아 천천히 하라고 했다. 뜨거운 팔죽을 식혀 먹는 동안 아들이 돌아왔고 내기에 진 아홉 딸은 성 위로 올라가 몸을 던져 죽는다. 아들은 가출하고 어머니도 남편의 무덤 앞에 아홉 딸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여생을 보내다가 숨을 거두었다. 이때 죽은 아홉 딸과 부모의 묘는 11기의 묘라고 전해진다.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구녀산성 표지판)

뜨거운 팔죽은 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로서 딸들의 지체를 돕는 감각적 장치로 등장한다. 그로테스크한 무덤들은 불화가 한 가족의 파멸로 이어진다는 텍스트를 전달해주는 경관이다. 표현주의 예술처럼 실재적 모습보다는 당시의 억압적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 무덤 경관은 치열했던 한 가정의 전투를 재현하면서

도 전투 당사자들의 불안정한 내면의 감정을 경관 응시자들에게 이전시킨다.

힘내기에서 승리한 아들마저도 가출하여 절망과 회한으로 자책하는 남성들의 성찰적 연대는 고뇌를 느끼게 한다. 그렇게 죄의식은 해소된다. 죽은 누이들은 말이 없다. 파멸의 책임에 대한 문책은 사라지고 청자들은 불화를 경계하면서도 아들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가 부과된다. 김영희(2013:8)는 과오와 결함을 여성의 존재 속성으로 귀착시켜 남성 지배를 자연화시키는 전략임을 제기한다.

소수자로서 누이들은 남자 형제와의 불화를 경계해야 하며 양보와 희생이 중요한 미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가부장제의 온존과 강화에 순응하게 된다. 이러한 가스라이팅 효과<sup>3)</sup>는 행위 주체성을 약화시켜 의존적 존재로 재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 남서쪽의 청주에서 교통로를 따라 동쪽으로 40리 거리(4간)에 구라산(謳羅山)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고성(古城)의 존재가 확인된다. 현대의 지도에서는 구녀산이라고 표기한다. 9명의 딸이 죽었다는 설화는 지명도 변화시켰다.

“25년 전 여기 장사하면서 들었죠. 위에 가면 쌓다만 성도 있고 11기의 무덤도 있어요. 처음 들었을 때 거기(전설) 엄마가 너무 심했다는 거. 그땐 다 그랬으니까 그런(불편한)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는 얘기안 해요. 요즘 세상에 맞지도 않고, (다른 동네도 있다는 건) 처음인데요. 다른 동네에도 있어요?”



그림 3. 동여도에서 청주지역 부분

출처 : 한국학자료센터.

(A, 청주 거주, 60대 여성, 2019년 2월 2일 인터뷰)

처음 설화를 듣고서 엄마의 역할이 너무 심했다는 점이외에는 불편한 느낌은 들지 않았다고 한다. 어머니의 아들 편들기는 자연스럽게 수용되었다.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가장 최근(1990년대)에 설화를 청취했음에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남아선호 사상과 관련된 젠더 의식이 최근 급격히 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유사한 설화들이 다른 지역에도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정보 습득의 네트워크가 없었던 고립적 상황이었다. 당대의 설화들이 품고 있는 이데올로기 일반이 간파되기 어렵고 사회적 연대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기술복제시대의 진품은 아우라를 상실하게 되는데 기술복제시대 이전의 설화는 다양한 버전의 각 지역 서사가 모두 진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 2) 충남 공주 무성산성

공주 무성산성은 홍길동성이라고도 한다. 전술한 구녀성은 무덤이라는 서사로 인해 산성과 무덤이 동시에 증거로 제시되는데 반해 무성산성은 홍길동의 가출로 산성만이 증거로 제시된다.

홍길동 오누이는 힘이 장사였는데 자주 다투어 힘내기 이기는 쪽만 살아남기로 하였다. 길동은 쇠신을 신은 채 송아지를 끌고 한양을 갔다 오고, 누이는 성을 쌓는 내기였다. 성문 하나만 놓으면 완성되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죽을 쑀어 누이에게 먹게 했다. 누이는 뜨거운 죽을 먹고 일어서려는데, 어느새 길동이 도착했다. 약속대로 누나는 목을 매고 숨졌다. 지금도 무성산의 돌성은 성문이 완성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다고 한다.



그림 4. 동여도에서 공주지역 부분

출처 : 한국학자료센터.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홍길동성 전설, 집필자 박종익」)

무성산성은 임도를 따라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조금씩 잔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임존성처럼 그럴듯하게 재현된 보수공사는 없었지만 둘레 525m 가량으로 규모의 폐성임을 알 수 있다(공주대학교 박물관 편, 1995:414). 완성되지 않았다는 성문은 비증거의 증거로서 ‘하이퍼 리얼리티’로서 기능한다. 그림 4의 동여도에서는 당시에도 무성산 고성(古城)이었음을 확인해준다. 현재 마곡사의 위치는 무성산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동여도의 오류로 보인다.

웅진을 방어하던 백제의 산성이었다는 설(가경고고학연구소, 2010)을 뒤집은 연구(서정석, 2012)에 따르면 무성산성은 농성의 용도로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 사이에 축성되었다가 조선 전기에 어떤 이유로 다시 사용되었다고 한다.<sup>9)</sup> 충청지역에는 수많은 산성이 산재한다. 설화에는 전쟁과 방어 같은 축성 목적에 관한 서사는 전혀 없다. 이는 이미 고성(古城)이 된 경관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이쪽으로 시집왔지. 시집와서 시할머니, 시할아버지한테 들었지. (아들 편을 든다는 건) 대를 이어야 하니까, 대를, 그런거지. (아이들한테는 전해주었는지?) 아녀, 그러진 않았어.”

(B, 공주 거주, 80대 여성, 2019년 2월 1일 인터뷰).

이 지역에 시집을 와서 시조부모로부터 홍길동성 설화를 처음 들었다고 한다. 1950년 중후반대로 전쟁 직후



남아선호의 맥락을 설화를 통해 체득했고 시조부모의 의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다.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은 “특정한 장소들이 특별한 기억의 힘을 지니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족사와의 확고부동한 장기적인 연고 때문”(변학수·채연숙 역, 2011:414)이라고 설명한다. 가부장제의 영속은 남아 생산을 통해 지속되었고, 대를 이어야 한다는 지속 의지의 믿음을 재생산했으며 이에 여성은 도구적 역할을 넘어 ‘이데올로기’ 재생산의 주체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

## 2. 경합 담론 사례(묘순이 바위, 농다리)

### 1) 충남 예산 임존성 묘순이 바위

예산군에서 세운 표지판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묘순이 남매장사는 목숨을 걸고 시합을 하는데 누이인 묘순이는 성을 쌓고 남동생은 쇠나막신을 신고 한양에 다녀오는 시합이었다. 묘순이는 성을 쌓았으며 바위 하나만 올려놓으면 성이 완성될 무렵 어머니는 시간을 늦추기 위해 종콩밥을 먹지로 먹인다. 동생이 성 가까이 온 것을 본 묘순이는 깜짝 놀라 마지막 바위를 옮기다가 바위에 깔려 죽는다. 지금도 묘순이 바위를 돌로 치면 ‘종콩밥이 웬수다’라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예산군 대흥면 임존성 표지판).

예산군 대흥면에 위치한 봉수산은 봉황의 머리를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대흥산이라고 불린다. 임존



그림 5. 동여도에서 예산지역 부분

출처 : 한국학자료센터.

성은 그림 5에 명칭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고성(古城)으로 적시되어 있다. 대흥 일대에서는 중요한 랜드마크이며 용도는 폐기되었으나 지역 주민의 일상에서 증거물로 활용 가능한 경관이다. 어머니의 배신과 묘순이의 죽음이라는 잔인한 서사의 완성은 묘순이 바위라는 경관을 증거로 설득력을 강화한다. 여기에 더해 묘순이 바위를 돌로 치면 ‘종콩밥이 웬수라’라는 소리가 난다는 에필로그는 과거의 서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연계됨을 재현한다.

임존성에서 예당저수지 방향으로 내려가면 ‘의종은 형제’ 공원이 위치한다. 지극한 효심은 기본이고 상대를 걱정하는 형제가 밤중에 뱃단을 옮긴다는 따뜻한 서사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고, 라면 광고의 형님 먼저, 아우 먼저의 모티브가 되었다. 의종은 형제 이야기는 임존성 묘순이 바위와는 대척점에 위치하며 상반된 인간적 향기를 더해준다.

“내가 어렸을 때 거기로 소풍간 적도 있지요. 75년 더 전에, 일정 때, 거기 가면 바위가 있는데 엄마가 아들을 이기게 하려구 종콩밥을 먹여서 누이가 바위에 깔렸는데, 두드리면 ‘종콩밥이 웬수다.’ (아들 편을 든다는 건) 그때 다 그랬지, 이상하지도 않았고.”

(C, 예산 거주, 90대 남성, 2019년 2월 1일 인터뷰)

“나는 이 동네로 시집와서 들었는데, 그때는 아들이 그랬으니까(우선이니까). 근데 묘순이 바위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리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다른 지역에도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의종은 형제 이야기는 우애가 좋은 이야기니까 알려줬는데, 묘순이 이야기는 요즘엔 하기가 좀 그래요. 요즘 여성이 좀 드세지는 세상이니까.”

(D, 예산 거주, 60대 여성, 2019년 2월 1일 인터뷰)

‘묘순이 바위’ 설화는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우애 좋은 형제 이야기’는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충남 예산지역 젠더 설화 비교

| 묘순이 바위         |    | 의종은 형제  |
|----------------|----|---------|
| 어머니의 배신, 딸의 죽음 | 서사 | 뱃단 나눔   |
| 권모술수           | 감응 | 형제애, 효심 |
| 여성             | 젠더 | 남성      |

이처럼 네거티브 서사는 세대 간 전달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젠더 이슈가 민감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청취 당시에는 반감이나 부동의가 등장하지 않았다.

현대에는 묘순이 바위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리는 것도 부적당하다는 평가도 진술되었다. 두 설화는 상반된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조를 이루며 소멸과 성장이 엇갈리고 있다. 양 담론은 규범적으로 상반되는(counter) 담론은 아니지만 경합하는 담론이다. 경합 담론은 당시의 사회적 맥락에서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영향력의 변화를 겪게 된다. 우에 좋은 형제 이야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보하기 적절한 긍정적 콘텐츠로 지역 관광지 활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10월 26~28일 '의좋은 형제' 축제를 진행한 바 있다.

## 2) 충북 진천 농다리

1976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28호로 지정된 농다리에는 젠더 설화를 포함하여 장군설화, 재앙예고 등 다양한 서사가 전해진다. 「오누이 힘내기」 설화는 다음과 같다.

임 씨에게 남매는 장사로, 죽고 사는 내기를 하였다. 아들(임연 장군)은 굵 높은 나무신을 신고 송아지를 끌고 서 울에 갔다 오기로 하고, 딸은 농다리를 놓기로 하였다. 딸이 치마로 돌을 날라 마지막 한 칸을 남기자 먹을 것을 해다 주며 일을 늦추게 했다. 결국 아들이 먼저 돌아와 내기에 이겼고, 딸은 약속대로 죽었다. 딸이 놓은 다리는 지금도 그대로 있지만 다른 사람이 놓은 한 칸은 장마만 지면 떠내려간다고 한다.

(한국민속문화사전, “국립민속박물관”,  
「농다리」, 설화편, 집필자 이인화)

일반인이 놓은 다리는 장마에 떠내려간다는 디테일한 설정은 설득력을 더한다. 내기에서 마지막 한 칸의 서사 장치는 아슬아슬한 조바심을 불러일으키며 청자를 집중하게 한다. 동시에 딸의 자살과 죽음이라는 극단성이 주는 돌출된 장치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진천 농다리는 중부고속국도에 큰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변에 알려진 장소이며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련 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sup>10)</sup> 「오누이 힘내기」 설화를 들은 현대의 관광객들은 가부장제 성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감응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6. 동여도에서 진천지역 부분

출처 : 한국학자료센터.

“큰 도로(34번 국도로 추정)가 생기기 전에 아주 예전에는 저 넘어가는 유일한 길이었고 80년대 댐이 건설되면서 이쪽 문백면과 다리 건너 초평면을 연결하는 게 유일했으니, 예전에 지역 주민들이 매번 개보수 공사를 하고 지역 문화제가 되면서 외부 전문가들이 해서 예전과 원형이 좀 변한 건 있어요. 여기가 상산 임씨들의 자랑이어서 지역의 보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누이가 죽게 되는 이야기에 불편함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때는 뭐 다 그랬으니까. (아이들한테 전승)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도 농다리가 지역의 보물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지요. 나라에 큰일이 있거나 큰물이 들면 상판이 한 개내지는 두 개정도 무너져서 해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큰 상판을 장정들이 어깨에 나무를 대고 동아줄로 해서 큰 행사를 했지요. 모여서 천렵도 하고, 이 동네가 그때는 140호되는 큰 마을이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은 동네사람들이 손을 못 대게 관청에서 포클레인 같은 걸로 하니까. 또 외지로 많이 나가서 마을 사람들도 줄었고 그래요.”

(E, 진천 거주, 70대 남성, 2019년 2월 4일 인터뷰)

자식들에게 힘내기 설화를 전하지 않았지만 농다리가 지역의 자랑임은 자주 전했다고 진술한다. 경합 관계인 장군 설화와 재앙 예고 설화는 여전히 구전성이 강하지만 「오누이 힘내기」 설화는 소멸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농다리가 다른 지역과 연결하는 교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부족 신화, 서사 노래, 족보 등의 텍스트는 “우리는 누구인가?”에 답을 준다. 집단 정체성을 정의하고 강화하며 공유된 역사를 이야기함으로써 공동 행동에 동기를 부여한다(Assmann, 2011:123).



그림 6에서 진천에서 남동 방향의 교통로를 따라 30리를 이동하게 되면 하천의 교차점이 농다리로 추정된다. 미호천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교통로였음을 알 수 있다. 동여도 동쪽 구릉지대는 현재 초평저수지로 변해 새로운 경관이 추가되었다.

홍수 때마다 일반인이 놓은 다리는 떠내려간다는 서사적 장치는 큰물 직후 지역 주민들이 모여 복구하는 행사가 수반될 것이고 이는 지역사회를 통합시키는 집합 의례(collective ritual)로 이어진다. 이렇듯 경관은 단지 조망의 대상을 넘어 지역의 집합표상(representation)으로서 집합의식(consciousness)을 강화한다.

### 3. 소멸 담론 사례(충남 공주 석송보)

남동생은 쇠나막신을 신고 서울을 다녀오고 누이는 보를 쌓는 내기를 하였는데, 어머니의 방해로 누이가 패하여 죽고 말았다.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공주편 석송보전설”)

딸이 놓은 보는 큰물에도 터지지 않는다는 설정은 농다리 설화의 구조와 동일하다. 이는 견고한 가부장제의 메타포로서 반발과 부동의의를 제압하며 오랜 세월이 지

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상을 준다. 석송보는 이러한 환유(換喻)를 통해 경관의 응시를 상상적 이데올로기로 확장시키며 가부장제의 재생산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석송보의 재질은 콘크리트로 근대에 조성된 것이며 콘크리트보 바로 뒤에 여울(riffle)과 수면위에 노출된 기반암이 과거 석송보의 기초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보는 지주중심 지배체제를 기반으로 우기에 유실되다가 봄에 다시 시공하는 연례 행위(조성옥, 2018:168)가 마을의 집합 의례로 형성되면서 설화 생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지조사(2019년 2~3월) 결과 지역 주민들은 설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누이 힘내기」 설화는 지역사회에서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존성 묘순이 설화는 ‘의좋은 형제’ 이야기와 결합하고 있고 농다리의 경우도 다른 설화에 밀려 소멸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이미 석송보 전설은 결합의 과정 없이도 지역에서 소멸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힘내기의 과도한 서사와 남아선호 사상의 약화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남아선호 사상은 남성중심주의의 자본주의적 강화, 고도화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 노동 시장의 변화로 단순 반복적인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면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정규직 노동력으로

표 4. 젠더 설화의 서사와 경관

|             | 제재    | 서사 결말             | 경관   | 사진                                                                                    |
|-------------|-------|-------------------|------|---------------------------------------------------------------------------------------|
| 충북 청주 구라성   | 팔죽    | 누이들 자살,<br>오라비 가출 | 무덤+성 |  |
| 충남 공주 무성산성  | 죽     | 누이 자살<br>오라비 가출   | 성    |  |
| 충남 예산 묘순이바위 | 종공밥   | 누이 압사             | 바위+성 |  |
| 충북 진천 농다리   | 시간 지체 | 누이 죽음             | 다리   |  |
| 충남 공주석송보    | 밥     | 누이 죽음             | 보    |  |

배치되었다. 이를 통해 남아선호사상은 은폐된 젠더 이분법으로 대체된다.

#### IV. 결론

일부 '부동의'를 느낀 누이들조차 사회적 주변인, 이탈자가 되는 공포를 학습하면서 사회와 가족 속에 순치되기 위해 스스로 동의의 의지를 새긴다.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는 아주 작은 화자-청자 단위에서부터 작동하며 확대 재생산된다. 왜 나만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는지 억울한 여성의 부분적, 일시적 부동은 최종심급에서 가부장제의 결정력에 의해 와해되었다. 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어머니는 가부장제의 강화를 재생산하는 역할로 고착되었다. 하지만 타 지역에도 유사한 설화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러한 지역 간 네트워크 부재에도 불구하고 경관은 기억을 통해 사회적으로 만들어졌다.

개인적인 생각이 기억의 사회적 틀에 자리 잡고 이 집단 기억에 참여하여 회상의 행위가 가능하다(Halbwachs, 1992:38). 기억이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구성되고 전수된 충청지역의 「오누이 힘내기」 서사는 지역 내에서 다시 분류하기 힘든 하나의 단일 서사다. 이에 반해 당시 충청지역 지배층은 지역 분화가 나타났다. 청주목, 공주목 중심의 노론과 홍주목, 충주목 중심의 소론 계열이 대립하였고 이는 서원이라는 상징 공간을 통해 대별된다(윤희면, 2004:67-101; 이혜준, 2007). 이에 앞선 전종한(2005)의 연구에서는 충남 서북부는 소론계, 북부 아산과 천안, 영남인근 호서지방에서는 영남 사림계 사원이 분포하며 옥천과 충주 일대에서는 호서 사림계와 영남 사림계 사원의 완충, 경계 지대로 구분된다.

충청지역의 엘리트들은 지역 내 분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민중 서사인 설화는 균질화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서원이 강학에서 제례 중심으로 변질되어 기층 민중의 미디어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 생산과 전파 과정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민중 서사의 이데올로기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1차적 영향을 받지만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에 전복적 의지도 반영할 수 있는 저항 기제의 발아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다.<sup>11)</sup>

기억은 경관에 접착할 때 오래 남기에 증거로 성, 탑,

다리, 무덤이 등장한다. 이렇게 제시된 물리적 경관은 부분적으로 마땅치 않아도 이야기 구조에 끌려가 감응하게 되고 설득의 종지부를 찍는다. 위중 경관은 디지털 기술이 가능하게 한 하이퍼 리얼리티 장치와 동일한 역할을 하면서 설득을 유도한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그래픽 효과를 현실의 경관이 대신한다.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돌 한 조각에도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성스러운 것의 현현(顯現)을 히에로파니(hierophany)<sup>12)</sup>로 명명했다. 이렇듯 의미를 부여하여 경관은 만들어진다.

설화의 젠더 경관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 첫째, 증거 경관의 물질적 성격에는 젠더적 속성 자체가 없었다. 둘째, 비(非)사실에 경관이라는 시각적 특권을 부여하고 젠더 서사 텍스트를 덧씌워 위중 경관을 창안하였다. 셋째, 개인적이고 고착된 것이 아니라 남성중심주의의 지배 아래 사회적, 집단적 상황과 상호작용하면서 창안, 유통, 소멸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넷째, 설화는 엘리트 계급의 사상 분화와 다르게 독립되어 전개되고 있었다.

젠더 경관은 고정불변의 경관이 아닌 독해자의 의지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문화 경관으로서 다시 변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고박되었던 맥락들의 연쇄 끝에는 경관만이 살아남는다. 경관은 누군가 물리적으로 부수지 않는 한 영속적이며 기의들의 연쇄에서 기표인 경관이 우위에 선다. 재현 주체는 항상 사라지고 경관이 최종 심급의 결정자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리철학적 논의를 이후 연구에서 이어가려 한다.

남아선호와 남존여비의 전개 양상이 변화하고 있지만 남성중심주의의 위계적 이분법은 자본주의와 조응하여 또 다른 역동성을 보여줄 것이다. 비정규 여성 노동자의 일상과 미디어에 드러나는 젠더 이분법에 대한 전복적 응시가 추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이를 통해 현대의 젠더 경관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가 주목되기를 기대한다.

#### 註

- 1) 공주 지역의 전설 장소를 분석 결과 현출성(attracting attention), 음습성(shady and damp), 노변성(roadside)을 특징으로 한다. 이 중 노변성에 대하여 대부분의 전설 소재들은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 무대와 도로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인간의 상상

- 과 자연이 결합, 투영되는데 주민들의 생활공간 내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이간용, 2013:71). 여기서 노변성은 가시성으로도 수정할 수 있다. 근거리의 노변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생활환경에서 경관으로 응시 가능한 랜드마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 문학비평이 문화를 특별한 것으로 인식했다면, 문화연구는 일상의 영역으로 보았다. 문화연구의 원조 격인 Williams는 민중의 평범한 일상에 대한 주목(강내희, 2015:18)하여 신문화지리학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 3)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는 군대, 경찰, 사법기구와 같은 억압적 국가장치와 학교, 가족, 교회 등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 구분하면서 종래의 국가의 개념(억압적)을 이데올로기적 국가로 확장시켰다. 광의의 국가 개념을 통해 시민사회의 중요성, 설득과 이데올로기의 경합으로 논의가 이동할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하였다(김동수 역, 1993: 75-130).
  - 4)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정치철학적 개념으로 위기 국면에서 피지배 계급을 배제한 체 지배계급의 의도대로 위기를 해소하는 과정을 말한다(이상훈 역, 1999:139-156). 6·29선언과 민자당 합당을 예로 들 수 있다. 조선 중기 위험 관리 방안으로 여성을 탈각시키면서 물질, 사회적 착취를 통해 남성 지배층에게는 물질적 자원과 정치적 권력을 배분하여 남성 중심주의는 안정적 지배 우군으로 강화되었다. 이러한 개량주의적 침탈은 전형적인 분리타격 전략이다.
  - 5) 반면 누이가 양보하는 설화는 호남을 중심으로 구비 전승되고 있으며 누이는 옷을 짜는 역할, 오라비는 무등산을 다녀오는 역할로 변이된 형식이 있다. 오라비가 양보하는 누이에 감복하여 김덕령, 송팔영, 정여립 등 역사적 인물이 되었다는 결말로 마무리된다. 역사적 인물이 증거가 되는 서사로 증거 경관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호남권 설화는 본 연구에서 배제하였다.
  - 6)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몸, 공공 및 사적 공간, 장소, 집, 도시 및 건조 환경과 같은 공간 단위의 분석에 관여했음에도 권력 관계로서 경관의 검토를 경시했었다고 자인하면서 간학문적 패러다임의 출현으로 경관이 특정 도덕적 규범을 반영 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립된 젠더 고정성을 영속화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1970년대 페미니즘 연구가 발전할 때까지 경관의 젠더성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경관은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성으로 재현되었기 때문에 남성적인 것으로 가정되었다. (중략) 최근의 연구는 경관을 사회 문화적, 정치적 과정을 통합한 (이미지와 대상보다는) '보는 방식'으로 재구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경관 해석은 약해지고 (중략) 물질 환경에 대한 과거 페미니스트 비판의 대부분은 공간과 장소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었다.”(Dowler *et al.*, 2005:1-4).
  - 7) 주부의 로망으로 명명된 ‘대면형 주방’은 넓은 작업대에서 가족의 휴식을 보조하며 노동 강요 장치이다(김주현, 2016:59).
  - 8) 「Gas Light」 연극에서 남편은 가스등을 일불러 어둡게 하고 아내가 어둡다고 하면 부정하면서 아내의 탓으로 돌려 현실감과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 9) 무성산성에는 5개의 치성(雉城) 흔적이 남아 있다. 치성은 방어력이 취약한 지점에 성벽을 돌출시켜 삼면에서 접근하는 적을 공격하는 방어시설물인데 백제 산성에서는 찾기 힘들다(공주대학교 박물관 편, 1995:418).
  - 10) 진천군에서는 매년 5월 농다리 축제를 기획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농다리 주변에는 지역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 시설, 농다리 전시관, 초평호 수변데크, 하늘다리와 초롱길을 만들어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 11) 소백산맥을 넘어 경북 선산에는 누이가 승리하고 그 증거로 완성도 높은 주장사지 오층석탑을 제시하는 서사가 있다.
  - 12) 돌을 숭배할 때, 단순히 돌 때문이 아니라 히에로파니(hierophany)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태가 아닌 성스러운 모습으로 치환될 때 숭배의 대상이 된다. 어떤 사물이 성스러운 것이 되는 것은 자기와 다른 어떤 것을 구현하거나 계시하는 경우이다(이은봉 역, 1996:560).

## 참고문헌

가경고고학연구소, 2010, 「공주 무성산성 정밀지표조사보

- 고서」.
- 강내희, 2015, “일상의 문제와 문화연구,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연구, 12(2), 12-44.
- 공주대학교 박물관 편, 1995, 「공주문화유적」.
- 김동수 역, 1993, 「아미앵에서의 주장」, 서울:술(Althusser, L., 1976, *Positions*, Paris: Ed. Sociales).
- 김영희, 2013, “‘여성 신성’의 배제와 남성 주체의 불안 <오 누이힘내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화연구, 26, 5-55.
- 김종연, 2016, “충청북도의 하천 지형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5(1), 35-49.
- 김주현, 2016, “집과 가정: 젠더와 주거 디자인” 한국여성철학, 26, 39-72.
- 김준희, 2016, “오누이 힘내기 설화 연구: 담론 층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준희, 2019, “감정과 경험을 통한 설화의 확장과 변주: 「오누이 힘내기」 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화연구, 52, 31-64.
- 김현미, 2008,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도시기회 접근성의 사공간적 구축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3(3), 358-374.
- 류제현·진종현·정현주·김순배 역, 2011, 「문화정치 문화전쟁」, 파주: 살림(Mitchell, D., 2000,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 박종익 편, 2005, 「한국구전설화집 14: 충남편II」, 서울: 민속원
- 변학수·채연숙 역, 2011,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서울: 그린비(Assmann, A., 1999, *Erinnerungsrä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ächtnisses*, München: C.H. Beck).
- 서정석, 2012, “공주(公州) 무성산성(茂城山城)의 구조와 축조시기” 역사와 담론, 62, 183-212.
- 손문금, 2010, “서울시민의 이동행동에 있어서의 젠더차이: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1), 1-25.
- 안숙영, 2012, “젠더, 공간 그리고 공간의 정치화: 시론 차원의 스케치” 여성학논집, 29(1), 157-183.
-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2010, 「젠더, 정체성, 장소」, 한울(McDowell, L., 1999, *Gender, Identity and Place: Understanding Feminist Geographies*, Cambridge: Polity Press).
- 오동훈·신정엽, 2017, “Wylie의 접근 방법을 통한 문학 경관 독해: 「달콤한 나의 도시」를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6(1), 63-78.
- 윤승준, 2016, “한국 설화문화지도 작성을 위한 시고(試考)” 동양학, 63, 17-40.
- 윤희면, 2004,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파주: 집문당.
- 이간용, 2013, “공주지역 전설의 지리적 특성 분석” 문화역사지리, 25(2), 56-73.
- 이건학·신정엽·홍유진, 2013, “젠더화된 도시 공간 탐색: 도시건물의 용도별 공간 분포를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13(3), 57-73.
- 이동아, 2019, “설화 속 「딸 희생」 모티브 차용과 변모양상 - 「오누이 설화」와 드라마 <아들과 딸>, <불의 여신 정아>를 중심으로” 우리문화연구, 61, 71-92.
- 이상훈 역, 1999, 「옥중수고 2」, 서울: 거름(Gramsci, A.(auth.), Hoare, Q. and Smith, G.N.(eds. & trans.), 1978,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5th editio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 이수안, 2009, “서울 도심의 공간 표상에 대한 젠더 문화론적 독해 - ‘검경(speculum)’으로 보며 ‘산보하기(Flânerie)’” 대한지리학회지, 44(3), 282-300.
- 이은봉 역, 1996, 「종교형태론」, 서울: 한길사(Eliade, M.(auth.), Sheed, R.(trans.), 1974,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New York: Meridian Books).
- 이해준, 2007,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 11, 29-54.
- 전종한, 2002, “종족집단의 거주지 이동과 지역화 과정”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종한, 2005, 「종족집단의 경관과 장소」, 서울: 논형.
- 정현주, 2008,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43(6), 894-913.
- 정현주 역, 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파주: 한길사(Rose, G., 1994, *Feminism and Geography: The Limits of Geographical Knowledg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정현주 역, 2015, 「공간, 장소, 젠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Massey, D., 1994, *Space, Place, and Gende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정현주, 2016, “젠더화된 도시담론 구축을 위한 시론적 검토: 서구 페미니스트 도시연구의 기여와 한계 및 한국 도시지리학의 과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2), 283-300.
- 조성욱, 2018, “조선시대 수리시설에서 ‘설보(雪泐)’의 지리

- 적 의미” 한국지리학회지, 7(2), 165-180.
- 진종현, 2013, “재현 혹은 실천으로서의 경관: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4), 557-574.
- 최성재·박지훈·이애진, 2016, “충남 공주지역 문화유적의 지리적 입지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5(3), 303-313.
- 한지은, 2008, “탈식민주의 도시 상하이에서 장소기억의 결합” 문화역사지리, 20(2), 43-61.
- 한지은, 2013, “문화지리학의 경관 연구와 경관의 텍스트성” 안과밖, 34, 124-146.
- 한지은, 2014, “타이완에서 장소를 둘러싼 정체성과 기억의 정치” 문화역사지리, 26(2), 104-125.
- 한지은, 2015, “전장에서 관광지로 -동아시아의 기억 산업” 문화역사지리, 27(2), 55-78.
- 홍금수, 2009, “경관과 기억에 투영된 지역의 심층적 이해와 해석” 문화역사지리, 21(1), 46-94.
- Anderson, K., 1996, Engendering race research: Unsettling the self-other dichotomy, in Duncan, N., ed., *Body Space: Destabilising Geographies of Gender and Sexuality*, London: Routledge, 197-211.
- Assmann, J., 1995,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New German Critique*, 65, 125-133.
- Assmann, J., 2011, *Cultural Memory and Early Civilization: Writing, Remembrance, and Political Imagin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sgrove, D., 1989, Geography is everywhere: Culture and symbolism in human landscapes, in Gregory, D. and Walford, R., eds., *Horizons in Human Geography*, London: Macmillan, 118-135.
- Dowler, L., Carubia, J., and Szczygiel, B., eds., 2005, *Gender and Landscape Renegotiating Morality and Space*, London: Routledge.
- Duncan, J., 1990, Landscape as a signifying system, in *The City of Text: The Politics of Landscape Interpretation in the Kandyan Kingd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24.
- Duncan, J., 2005, “Home alone? Masculinity, discipline and erasure in mid-nineteenth-century Ceylon,” in Dowler, L., Carubia, J., and Szczygiel, B., eds., *Gender and Landscape Renegotiating Morality and Space*, London: Routledge, 19-33.
- Halbwachs, M(auth.), Coser, L.A(trans.), 1992, *On Collective Memory*,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ackson, P., 1989, *Map of Meaning*, London: Routledge.
- Johnson, N., 1995, Cast in stone: Monuments, geography, and nationalism,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3(1), 51-65.
- McClintock, A., 1995, *Imperial Leather: Race, Gender and Sexuality in the Colonial Contest*, New York: Routledge.
- Wylie, J., 2007, *Landscape*, New York: Routledge.
- 한국민속문화사전 “국립민속박물관”, <http://folkency.nfm.go.kr>
-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공주편 석승보전설”, <http://encykorea.aks.ac.kr>
- 한국학자료센터, “동여도”, <http://kostm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증편 한국구비문화대계”, <http://gubi.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화대계”, <http://yoks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Index>
- 교신 : 최정민, 28173, 충청북도 청주시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min8967@hanmail.net)
- Correspondence : Jung-Min Choi, 28173, 250 Taeseongtabyeon-ro,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he Second Colleg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min8967@hanmail.net)
- 투 고 일: 2019년 7월 2일  
심사완료일: 2019년 7월 9일  
투고확정일: 2019년 7월 16일



